"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재산권 침해 심각"

진도군의회

정부에 구역 전면 재조정 건의

전남 진도군의회(의장 김상헌)가 해상국립공원 구역을 전면 재조정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5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불합리한 국립공원 구역을 해제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각종 법령이나 제도상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장영우 부의장은 "우리군 도서 지역의 대부분은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공원내 개발 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일상생활을 비롯한 정주여건의 어려움이 수년가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10년 주기로 수립함에 따라 위기에 처한 도서 지역을 되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을 반영하는 지방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이번 조정에 국립공원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도군이 속해 있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은 1981년 지정됐다. 전체 면적 2266㎢ 가운데 진도군이 604㎢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여수시를 비롯한 5개 시·군 중 가장 넓다.

이와 관련해 진도군은 "도서 254개 중 유인도서는 45개로서 정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과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갈수록 도서 지역의 노령화 및 무인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전남 진도=김남중 기자 5555knj@

익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제2일반산업단지 36개 뿌리기업
공동활용시설 구축 등 국비 지원
인프라 집적화 위한 활성화 적극적

광주광역시청 전경.

익산 제2일반 산업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전북도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6개 뿌리기업이 포함된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도내 주력산업(자동차, 조선, 기계 등)에 있어 최종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반산업으로,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의 뿌리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을 이른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뿌리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전북 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뿌리기업 및 인프라 집적화를 위한 뿌리산업 특화단지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익산시, 전북 뿌리산업연합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도내에서 뿌리기업의 집적화가 가능한 특화단지 확대를 위해 탄탄한 사업기반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는 익산 제2일반산업단지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 신청하여, 그 성과를 거두게 됐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폐수처리시스템 및 공동물류시설 등 기업 간 공동활용시설 구축이나, 식당 및 주차장 등 공동편의시설 구축, 기업의 공동 혁신활동 수행 등을 위한 국비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전북도와 익산시는 익산특화단지 내 뿌리산업을 근간으로 다수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배후 장점을 살려 기업 간 소통 및 연계강화를 통해 공동 활용시설·편의시설 구축 사업 등을 발굴하여 내년부터 특화단지 지원사업 신청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나해수 주력산업과장은 "익산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뿌리기업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산단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익산 제2산단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비롯해 도내에는 지난 '15년 군산 국가산단, 완주 금형특화단지, '18년 익산 주얼리 특화단지등 총 4개의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있다.

/전북=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광주시 '떴다방' 등 불법거래 집중 단속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 개소 따라
투기조장 방지 위한 합동단속 시작

광주광역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일명 '떴다방' 등 외부 세력의 투기조장 방지를 위한 집중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위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5월24일 개소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I PARK)와 5월31일 개소한 어등산 한양수자인 아파트 분양사무소를 대상으로 매일 현지에서 떴다방 등 의심 행위자에 대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분양사무소 방문객 등 시민들이 투기 조장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현수막을 걸고, 홍보물을 나눠주며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시·자치구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은 어등산 한양수자인 분양사무소에서 떴다방 등 외부세력 활동 정황을 포착하고 분양사무소와 주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호 층 매수를 조건으로 연락처 요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의심자를 집중 확인하고 홍보활동을 병행해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

광주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기간은 최소 6개월로, 그 기간 내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전매 거래행위에 해당되며, 불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분양권 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거래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도 불법 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를 제안받거나 확인한 때에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 불법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세계수영대회 맞은 광주, 축제의 도시 '대변신'

다채로운 공연·예술로 축제 장 마련
5·18민주광장서 '프린지페스티벌'
설치미술·전시·체험 위주 야간 개장

수영대회100배즐기기_프린지페스티벌 개막식 장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기간 광주는 축제의 도시로 변모한다. 경기장, 선수촌, 5·18민주광장, 광주폴리, 공연마루, 전통문화관 등 발길 닿는 곳이 공연장이고, 무대이고, 전시장이 된다.

이 기간 광주는 너와 나, 인종과 언어의 구분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흥을 발산하는 환상의 무대가 된다.

예향 광주의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프로그램에 수영대회기간 특별히 준비된 다양한 장르와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까지 더해진다.

광주시가 외지인들에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준비한 광주국악상설공연이 매주 토요일 열린다.

대회 기간에는 확대 편성해 매일 오후 5시(매주 월요일 제외)에 관객들을 찾아간다.

광주시립창극단과 국악관현악단, 지역 국악단체가 참여해 창극, 한국무용 등 전통국악과 전통과 현대장르가 융합된 퓨전국악 등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국내 관광객 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보다 쉽고 친근하게 다가간다.

광주 대표 브랜드공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국악상설공연은 매회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서는 매주 토요일 광주프린지페스티벌이 진행돼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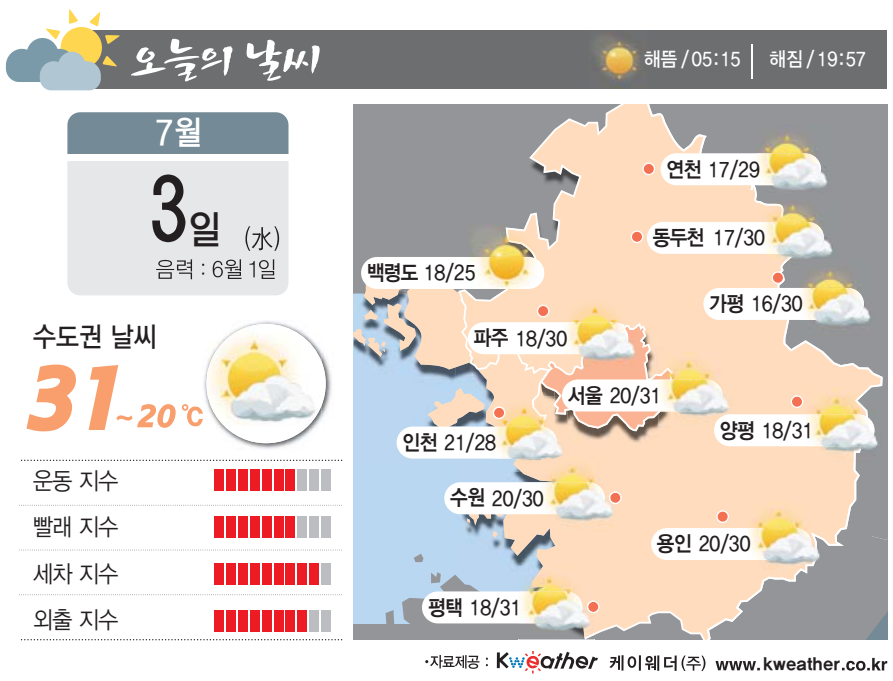
이번 여름시즌은 '아시아 문화의 물결'이라는 주제로 수영선수권대회와 연계, 확대해 진행한다. 해외 거리예술가들이 참여하는 '2019 아시아마임캠프' 뿐 아니라 대회 주경기장 및 선수촌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프린지페스티벌, 대구의 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달빛동맹 교류공연 등이 펼쳐진다.

광주시에서 주관해 추진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문화예술 행사지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총 18개의 민간예술단체도 광주 곳곳에서 예향도시의 멋을 보여줄 예정이다.

광주폴리에서 진행되는 클래식 음악회, 남부대 주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유리를 이용한 퍼포먼스(Glass Art), 광주 도심 속에 위치한 한옥(오가헌)에서 펼쳐지는 퓨전 음악극 등 다양한 소재와 볼거리로 수영대회 기간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대회기간 31일 동안 경기장과 선수촌, 5·18 민주광장 주 무대에서는 '물, 빛, 그리고 흥(興)' 이란 주제로 매일 공연과 전시, 댄스경연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도시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남부대 등 라이브 사이트를 운영해 도심 곳곳에 대회 관련 영상을 즐길 수 있다. 또, 전국에서 모인 96개팀의 시민 공연예술가들의 풍성한 공연을 남부대, 선수촌 등에 설치된 공연무대에서 매일 즐길 수 있다. /광주=봉채영 기자



무인민원발급기 365일 24시간 운영 개시

인천 연수구 구청 청사 내 3대 운영

인천 연수구는 구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구청 청사 내 무인민원발급기 3대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개인 지문인식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 등,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위치는 민원여권과 민원실 입구로, 신한은행 연수구청점의 협조로 지폐교환기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현황과 운영시간은 연수구청이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신규 설치와 24시간 운영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